“생명 살리는 일이 가장 큰 자비”

생명나눔 부산지역본부 창립 20주년 기념법회

7월 21일, 부산 홍법사서 봉행
장기기증·난치병 지원 ‘성과’
“생명의 꽃 피워 나갈 것” 다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7월 21일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창립 20주년 기념법회에서 주요 내빈들이 ‘생명의 보리수나무’에 희망의 잎을 다는 비전 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큰 자비입니다. 생명나눔으로 희망을 잇겠습니다. 생명나눔 20년, 생명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나온 자비행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비전을 선포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7월 21일 부산 홍법사에서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창립 20주년 기념법회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했다.

‘생명나눔 20년, 생명의 꽃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을 비롯해 본부장 심산 스님 등 불교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아울러 전재수 부산시장,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 백종헌 국회의원,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박수관 YC TEC 회장, 김수현 부산불교연합신도회 부회장 등 정·관·재계 인사들과 신도, 자원봉사자 등 사부대중이 함께해 생명나눔의 가치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의 백미인 비전 선포식은 새로운 20년을 향한 결의로 장엄됐다. 내빈들은 직접 무대에 올라 희망과 다짐을 적은 잎을 ‘생명의 보리수나무’에 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다 함께 비전 선언문을 제창하며 생명존중의 가치를 널리 전할 것을 서원했다.

본부장 심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년은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전하는 가슴 벅찬 시간이었으며, 이 모든 성과는 사부대중의 원력과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부처님의 자비는 나눌수록 더욱 커진다. 이제 새로운 20년은 생명의 숲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부산지역본부가 지난 20년간 수많은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의 어둠을 밝혀온 위대한 여정에 찬탄을 보낸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달라”고 격려했다.

정여 스님은 격려사에서 “심산 스님을 비롯해 생명나눔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모든 임직원과 불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치하했다.

정오 스님은 “부산지역본부가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명나눔 실천의 중심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사부대중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각계각층의 축하도 이어졌다. 전재수 부산시장과 백종헌 국회의원,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박종웅 부산불교연합신도회 부회장 등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 축사를 전하며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뜻을 함께했다.

법회에서는 생명나눔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복춘희 이사와 법경 스님이 부산광역시장 표창, 자인 스님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감사장, 부산광역시교육감 표창,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 등 다수의 봉사자와 임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감기부 프로젝트 등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 온 국제신문, BNK부산은행, BBS부산불교방송에는 본부장 감사패가 전달됐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생명실천 선언문’을 낭독하며 앞으로도 자비행의 저변을 넓혀갈 것을 서원하며 행사를 회향했다.

생명나눔 부산지역본부는 2006년 7월 21일 창립 이후 2026년 기준 장기기증 희망등록 6339명,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1만417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180명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07년부터 시작된 난치병 환우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496명의 환우에게 약 10억9910만 원의 치료비를 전달하며 병상에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새 사무실 개소

7월 21일, 양정불교회관 5층서
이윤희 회장 “화합으로 불교 중흥”



부산지역 200만 재가불자들의 구심점이 될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새 사무실이 마련됐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윤희)는 7월 21일 부산 양정불교회관 5층에서 사무실 개소 법회를 봉행하고 불교 발전과 화합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개소 법회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대표 자관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김수현 부회장, 박대성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및 각 신행단체가 대거 참석했다.

정여 스님은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해야 보이는 세계도 맑고 아름다우며, 내 마음이 혼탁하면 세상도 탁하게 보인다”며 “역경과 시련을 겪어내야 비로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듯, 신도회가 화합하여 맑은 향기를 뿜어내는 수행과 전법의 도량이 되어 달라”고 격려했다.

이윤희 회장은 “부산의 200만 불자와 각 신행단체가 이곳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화합해야 한다”며 “부산불교의 굵직한 행사들이 원활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신도회의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 사무실이 각 종단과 신행단체가 자주 만나 소통하고 불교 발전을 논의하는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오 스님은 축사를 통해 “불심의 도시 부산에서 연합신도회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과 세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부 법회를 마친 사부대중은 사무실 입구로 이동해 현판 제막식을 열고 부산 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2008년 11월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설동근 회장 체제로 출범했다. 이후 2대·3대 이윤희 회장, 4대 박대성 회장, 5대·6대 박수관 회장을 거치며 2012년 양정불교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및 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등 부산 불교 발전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2024년 3월 이윤희 회장이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한 후 이어 올해 5월 범어사로부터 양정불교회관 5층을 사무실로 인가받았고, 정비 기간을 거쳐 이날 개소식을 열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명상으로 집착·분별 내려놔야”

진우 스님, 범어사 백중법회서
보물 지정 대웅전 벽화 참배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18일 범어사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에서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불교가 살아야 한국불교가 살고, 한국불교가 살아야 세계가 정신적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음에도 마음의 행복은 오히려 부족해진 현대 사회의 불안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금정총림 범어사 백중지장기도 법석에 올라 현대인들의 마음 챙김을 위한 ‘선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7월 18일 설법전에서 진우 스님을 초청해 ‘202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법문에서 오늘날 전쟁과 갈등의 근본 원인이 마음의 평화를 잃은 데 있다고 진단했다.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가 널리 전해질 때 차별과 갈등이 없는 정토세상을 이룰 수 있으며, 이는 모든 불자의 사명”이라고 강조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해결책으로 선명상을 제시했다.

이어 “선명상은 어려운 수행이 아니라 순간순간 일어나는 집착과 분별을 내려놓는 연습”이라며 “좋고 싫다는 분별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연기의 이치로 바라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안을 찾게 된다”고 설명했다.

백중기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는 “조상과 영가를 천도하는 의식인 동시에 살아 있는 우리가 먼저 수행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자리”라며 “내가 먼저 해탈해야 인연 있는 영가도 함께 성불할 수 있다”고 설했다. 끝으로 “괴로움은 대상이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는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며 “먼저 자신의 마음을 부처의 마음으로 바꿀 때 가정과 사회, 세상도 함께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법문을 맺었다.

법회에 앞서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진우 스님은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한 깊은 인연이 있는 만큼 범어사를 늘 고향 같은 도량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며 “한국 선명상을 널리 알리며 국민들의 마음 평화를 위해 힘쓰고 계신 만큼 오늘 법문이 모두에게 큰 수행의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회는 백중을 맞아 선망부모와 유주무주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한편, 참석한 불자들이 선명상을 통해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편 진우 스님은 이날 최근 보물로 지정된 범어사 대웅전 벽화를 참배한 데 이어, 범어사를 찾은 전재수 부산시장과 함께 성보박물관 특별전 ‘고려청자 발우와 고승 유묵전’을 관람하며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살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 ‘사찰 RE100’ 첫발

7월 22일, 업무협약 체결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사찰 RE100’ 달성에 나선다. 사찰 RE100은 사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이다.

범어사는 7월 22일 국민에너지전국회의(공동대표 최형욱), (주)국민솔라(대표 김대오)와 ‘대한민국 국민솔라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민 주도 지역 에너지 공공개발 모델을 종교계가 수용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 실천 사업으로 범어사는 산하 학교법인 소속 금정중학교와 해동중학교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한다. 실행기구인 국민솔라가 사업비 전액을 조달해 두 학교 지붕과 옥상에 약 1MW 규모의 공익형 발전소를 설치한다.

해당 발전소가 가동되면 연간 138만k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도시 가구 460여 세대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매년 23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낸다.

전력 생산 수익금은 학생을 위한 ‘햇빛장학금’과 녹색교육 재원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주지 정오 스님은 “기후위기 극복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시대에 맞게 실천하는 길”이라며 “국민이 전력생산의 주체가 되는 행보에 종교계가 동참해 생태문명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해동용궁사, 기장군에 ‘자비의 쌀’ 전달

7월 16일, 백미 5000kg 기탁
기장군과 안전 인프라 논의



부산 해동용궁사(주지 덕림 스님)가 지역사회와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해동용궁사는 7월 16일 기장군청 군수실에서 이웃돕기 성품으로 백미 5000kg을 기탁했다. 기탁된 쌀은 기장군 관내 복지관 및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배분될 예정이다.

주지 덕림 스님은 “신도들의 정성으로 모인 공양미를 지역사회에 회향하는 것은 사찰의 당연한 책무이며 앞으로도 힘이 닿는 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지자체의 노력에도 여전히 숨어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이번 해동용궁사의 자비의 쌀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날 덕림 스님과 우성빈 군수는 외국인 관광객 등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해동용궁사 주변의 소방도로 등 안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기장군 해안길을 연계한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지역 경제와 사찰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김해 불인사, 법화경 천일기도 4차 회향

7월 19일, 백중 입재 특별법회
통도사 율월장 도암 스님 법문



김해 불인사(주지 송산 스님)는 7월 19일 백중기도 입재와 법화경 천일기도 100일 4차 회향을 기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명사 초청 법문으로 진행됐다. 법상에 오른 통도사 율원장 도암 스님은 “법화경의 궁극적 가치는 모든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을 깨달아 성불하는 데 있다”며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습관과 집착을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화경을 독송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노력이 수행자의 길”이라고 당부했다.

주지 송산 스님은 “법화경 천일기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수행과 포교의 원력을 세우기 위한 정진”이라며 “100일마다 이어지는 특별법문을 통해 불자들이 더욱 바른 신행과 수행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밀양 표충사, 2차 비단벌레 자연 방사

7월 30일, 인공증식 암·수 6마리
진각 스님 “천연기념물 보존 앞장”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 스님)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비단벌레의 종 보전과 생태 복원을 위한 두 번째 자연 방사를 실시한다.

표충사는 7월 30일 오후 2시 수충루 앞에서 ‘인공증식 비단벌레 자연방사’를 개최한다. 이날 방사되는 비단벌레는 암·수 6마리로, (사)숲속의 작은 친구들이 표충사 일대에서 포획한 종충을 바탕으로 인공증식한 개체다. 본래 서식지인 표충사 사찰림으로 되돌려 보내는 이번 방사는 멸종위기종 복원은 물론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각 스님은 “비단벌레 방사가 생명의 소중함과 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충사는 지난 2023년 도량 주변에서 비단벌레 서식지가 발견된 이후, 2024년 (사)숲속의 작은 친구들과 생태 연구 및 지속 가능한 종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체수 증식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국내 최초로 인공증식 비단벌레 자연 방사에 성공했다. 당시 방사한 6마리는 현재까지 표충사 사찰림에서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